



국토교통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3. 2. 24.(금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 고명윤 (044-201-3539)
보도일시	2023년 2월 27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7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골재 품질관리 강화 위한 수시 품질검사 결과 발표 - 수도권 16개 업체 검사 결과 3개 업체 부적합 판정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(14시, 한국골재산업연구원)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·확정하였다.
-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경기·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*을 받았다.
 - * 이중 2개 업체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음
 -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molit.go.kr)과 (재)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(ark.re.kr)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.
-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*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,
- * 공모('22.6.14~24) 및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(재)한국골재산업연구원 선정('22.7.11 공고)
 -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.

-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지며,
 -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·이유·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,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.
 -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·판매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골재 품질 저하 및 더 나아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.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“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” 며 “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